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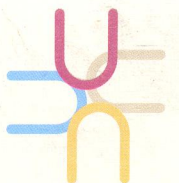
제22호
2010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보



목차

- 1 교수회장 인사말
- 2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우리 대학의 위상 및 과제
- 4 특별기고 | 박홍식 교수 | 전방욱 교수 | 정기성 교수 | 이종석 교수
- 21 신임교수 및 정년퇴임교수 소개
- 24 교수 동정
- 25 교수회 활동
- 27 2010년 기성회계 예산안 심의 의견요약
- 28 제16대 평의원회 명단
- 29 〈부록〉 대학 발전 설문조사 결과



제 22호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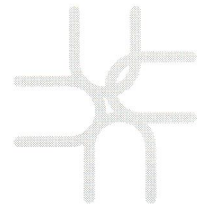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보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대답 없는 학교 당국에 대한 제언



교수회장 • 박찬일 교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회보지가 다시 발간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벌써 제가 교수회장에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생각했던 일을 한가지 씩 할 때 보람도 느꼈고, 교수회 현실에 답답함도 느꼈습니다. 교수회는 따뜻함이 있어야하고 학교 행정에 대한 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대학 발전 설문조사와 개강 식사 초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성회 예산에 대한 교수회 의견 반영을 요구하였고, 교수님들의 경조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 교수님들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일이 많은 줄 압니다.

그동안 국립대 교수회 회의에 참석하고자 부산대, 경북대, 목포대, 공주대에 출장 갔습니다. 우리학교 교수회는 교수회장실, 교수회 사무실도 없고, 학점 시수도 줄여 주지 않는 반면에 이 학교들은 교수회 관련 큰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교수회 예산도 우리학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대부분 법정화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수회는 학교 전체 메일도 사용할 수 없어 최근에는 자체 메일 시스템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에 학교 전체 메일 사용요청, 국립대 최저 수준의 연봉의 개선요청, 국제 교류관 신축재고, 기성회 예산심의 의견 등의 여러 차례의 건의문과 공문을 올렸으나 단 한차례의 공식적인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학교는 2009년 조선일보 · QS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아시아 순위 123위 국내 순위 23위, 2010년에는 전체 아시아 순위는 150위로 다소 뒤로 후퇴하였고, 12000명 이하 대학 순위에서 아시아 22위로 국내에서는 4위였습니다. 이러한 순위를 올리게 된 것이 논문 인용지수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학교 구성원도 크게 고무되고 학교당국도 홈페이지, 학교 버스에 이를 표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학교에서는 학교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 논문 게재에 파격적인 대우를 하는 데 반해서, 학교당국은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대책은 없고 오히려 신 교수평가 안에서 연구평가 점수를 10% 줄이고 봉사평가 점수를 10% 늘렸습니다. 교수님들에게 없던 연구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연구 역량을 가진 교수님들이 있으며 불리한 연구 환경과 대우 속에서도 근근이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수님들에게 연구 환경을 개선하여 주고, 연구자 사기 진작책을 쓴다면 비싼 광고료를 지불하지 않고 학교 위상은 상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평가점수의 논란이 있고, 학교 평가에도 크게 도움을 주지 않는 봉사점수의 상향 조정 보다 연구자에 대한 대우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난 설문조사에서 학교 당국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았고, 총장 선거에서의 공약이 아직 많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충분한 명분도 없고 구성원 설득도 없이 기성회비로 국제 교류관의 건립을 추진하며, 교수 연봉의 개선에는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당국은 설문조사에 나타난 교수님들의 의견과 앞에 제기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우리대학의 위상 및 과제

대학 발전 설문조사는 단과 대학별로 평의원 한분씩 참여하고, 방학동안 설문조사 내용을 만들어 개강과 함께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크게 학내 문제와 대학 발전 과제와 본부평가로 이루어지고 각 과제는 3-4개의 세부항목과 세부항목당 3문제 정도로 질문 항목과 제안 항목을 두어 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204분이 참여 하였고, 해외 파견교수를 제외하면 56.5%, 연구년을 제외하면 59.5%의 비율이었다. 다음은 그 결과를 요약하였고 전체 통계 내용은 부록으로 회보지 끝에 수록하였다.

차기총장의 과제는 교수처우와 복지후생 개선

1. 학내 문제와 대학 발전 과제

1. 현재 학교 위상

우수 신입생 유치(62.3%)와 연구환경 및 성과(55.4%)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아울러 이 항목이 국내 다른 대학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향후 3년간 우리 대학이 가장 중점을 두고 개선 시켜야 할 항목으로 우수한 신입생의 유치, 교육환경개선, 교수의 연구환경 및 성과를 들 수 있고, 이에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 캠퍼스 균형 발전 및 특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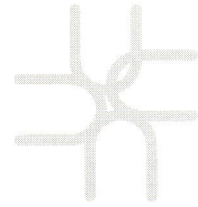
통합이후 강릉과 원주캠퍼스의 균형발전과 특성화에 대한 시각은 65.7%가 부정적이었다. 또한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78.9%가 지적하였다. 캠퍼스의 배치 및 활용의 효율성 증대와,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원주캠퍼스에서도 일정 시간 근무하는 것에 긍정적 의견이었다. 원주 캠퍼스에 부총장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반이 각각 대등하였다.

3. 교수회 위상 확보 과제

교수회 위상이 80.4%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교수회 위상의 향상을 위해 학칙기구화의 추진을 언급하였다. 추진방식으로는 차기총장 선거공약 사항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중간평가 받도록 하는 것(42.2%)과 즉시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서 본부에 건의 및 촉구(30.4%)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4. 차기 총장의 과제와 기타 발전 과제

차기총장의 과제는 교수처우와 복지후생 개선(58.3%), 우수학생 유치와 취업률 제고(53.4%), 교육여건



의 개선(37.7%) 순 이었다. 기타 발전과제로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은 반대이고 강원도내 한 개의 국립대로 대학통합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찬성이었다.

총장의 학교 운영에 불만 높아

II. 본부 평가

1. 총장기여도

총장의 학교 위상에 대한 기여도는 44.6%가 잘못한다고 평가하여, 잘한다고 평가한 23.6%보다 높았다. 또한 학교운영에는 47.5%, 학교의 기본정책이나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은 51.4%, 보직인사는 53.9%가 잘못한다고 평가하고 각 항목에서 31.4%부터 33.8%가 보통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보직인사에서는 10.8%만이 잘한다고 평가하였다.

2. 본부부서

모든 부서들이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 보통의 평가를 받았고 교무처등 3처에 대해서는 잘못한다고 평가가 잘한다는 평가 보다 높았다. 이중 기획협력처가 36.8%가 잘못한다고 평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고, 도서관은 32.3%가 잘한다고 평가하였다. 기타사항으로 학생상담실 신설과 학생과 교수 복지시설 확충, 특수목적 대학원 설립 및 평생교육원 지원강화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3. 교육부분 : 교육개선사업, 국제화 사업 등

학생교환 및 학술교류 협정 체결과 추진에 40.2%가 만족하였으며, 영어몰입교육, 기초수학교육등의 교육부분사업이 교육의 질과 학생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53%), 외국인 학생유치사업이 대학 발전과 이미지 향상에 53.5%가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내실 있는 국제화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4. 복지, 연구 지원 부문

교수들의 보수 및 복지수준, 연구지원이 각각 89.3%, 75%로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고, 교수업적평가제와 국고연구비성과급제에 대하여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우리대학 봉급수준 그리고 총장의 책무

사회과학대학 자치행정학과 • 박홍식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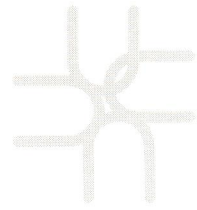
1. 우리대학교수 봉급수준

2009년도 말 중앙일보와 교수신문 등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199개 대학 중 우리대학교수의 평균연봉은 정교수의 경우 170위에 해당될 정도로 최빈약 상태이다. 우리대학보다 하위에 있는 30여개의 대학들은 대개 종교대학이거나 대학분규로 주민들로부터 외면시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대학들이다. 대학교수님들이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몇 개씩 갖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접적인 형태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역대 총장의 집행부가 얼마나 무심했는가하는 반증이기도 하다.

〈표1〉 전국주요대학교수 평균 연봉 (정교수)

(천원)

순위	대학명	평균	최고	최저
1	을지대학(대전)	135,442	280,024	67,651
2	연세대(원주)	134,403	193,078	89,962
42	안양대	99,375	116,000	80,700
52	청주대	96,418	124,844	70,321
76	상지대	91,004	114,850	71,974
77	서울대	90,951	99,579	68,740
85	관동대	89,134	109,229	40,719
96	진주교육대	86,360	93,674	74,403
97	공주교육대	86,324	104,980	67,274
100	광주교육대	85,664	117,420	71,812
111	춘천교육대	83,710	97,394	68,841
120	전남대	82,041	100,105	63,535
124	강원대(삼척)	80,704	92,283	57,793
127	공주대	80,209	89,060	63,376
138	충주대	79,304	89,344	62,599
143	한라대	78,029	84,302	72,943
153	군산대	76,029	84,302	58,616
160	안동대	75,018	85,591	59,038
169	목포대	72,306	83,294	55,829
170	강릉원주대(강릉)	72,250	83,294	55,829
177	강릉원주대(원주)	69,471	84,014	30,980
178	아세아연합신학대			
193	한중대	52,160	52,160	52,160
199	중앙승가대 영산신학대			



상기 표에 의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찾아진다

- ① 연봉수준을 단순 비교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적지만 적정수준을 고려할 경우 참고는 될 것이다. 가장 높은 을지대학교와 비교할 경우 평균연봉은 우리대학이 1/2에 해당되며, 최고 수준과는 1/3에 불과하다
- ② 서울대와 비교할 경우 연1,800만 가량 적다
- ③ 지역중심대학(공주대, 군산대, 안동대 목포대)간에는 큰 차이가 적지만 공주대학교와 비교하면 연1,000만원 가량 적으며 동년 설립된 대학 중 최하위 수준이다
- ④ 강원도 내 대학과 비교할 경우 상지대(91,004천원), 관동대(89,134천원), 춘천교육대(83,710), 강원대(삼척:80,704천원), 한라대(78,819천원)보다 800~1900만원 적다
- ⑤ 학생수가 적은 교육대학교(평균8,500만원)보다 연1,300만원 이상 적다
- ⑥ 신입생확보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입생확보율 30%정도) 한중대학교(5,200만원)와 비교되어 지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강릉원주대 신입생확보율 95%내외정도)

대학교수의 연봉이 적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어 연구장려금, 교육강의장려금 등 면에서 상위수준에 이룬다면 납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유사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더욱 자괴감을 갖게 한다.

2. 시간대별 급여수준과 기성회 정액연구비

대학교원의 연봉을 구성하는 항목을 대별하면 정부지원의 기본급(호봉에 따른) 재직공무원 전체에 지급되는 가계지원비(월봉급액의 16.7%) 그리고 기성회지원의 정액연구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대학기성회지원의 정액연구비의 증가추세와 정부지원의 기본급의 증가 추세를 비교하면 대학집행부가 대학교수들의 복리수준에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여 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역대 총장임기중의 기성회지원액을 연도별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대학은 1991년 종합대학교로 승격된 이후 4년 임기 총장을 5번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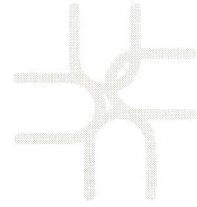
〈표2〉 역대 총장임기중 기성회 정액연구비

(정교수기준)

연도	총장	기본급	정액연구비	비고
1대 (1991-1994년)	이참수	30호봉 : 841,500 33호봉 : 904,500 (1991년도)	363,000	기본급의 40%
2대 (1995-1998년)	강규석	30호봉 : 1,384,000 33호봉 : 1,484,000 (1995년도)	438,000	기본급의 35%
3대 (1999-2003년)	임승달	30호봉 : 1,571,000 33호봉 : 1,683,900 (2000년도)	538,000	기본급의 35%
4대 (2003-2006년)	한송	30호봉 : 2,550,700 33호봉 : 2,734,000 (2005년도)	538,000	기본급의 20%
5대 (2007-2010년)	한송	30호봉 : 3,362,300 33호봉 : 3,600,600 (2009년도)	638,000	기본급의 18%

상기표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첫째, 20년의 기간동안 정부지원의 기본급은 400% 증가하였고 (30호봉기준 841,500원에서 → 3,362,300원으로) 정액연구비는 절대금액 27만원만 증가했을 뿐이다
- ② 기성회비 증액에 관심 가진 기간은 3대 임승달 총장, 초대 이참수 총장 2대 강규석 총장때이다.
- ③ 제4대 총장기간(2003-2006년)중에는 기성회비 증액이 전무하였고 이것이 전체대학 연봉수준에서 강릉원주대학을 170위에 이르도록 한 요인이다
- ④ 상대적 비율로 보아 정액연구비는 기본급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역대총장은 교수생활수준에 관심이 적었다 할 수 있다 (기본급의 40%에서 18% 수준으로 하향)



3. 기성회 정액연구비의 적정수준과 총장의 책무

2009년도 기준 우리대학의 기성회비의 세입은 약350억에 이른다.

연도별 예산편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공통경비(기성회직원보수, 교수정책 연구비, 시간강사료 등 인건비)에 50% 내외, 사업비에 35%내외, 관서운영비 6%내외기타 순으로 되어있다.

기성회비의 지출은 기성회 목적 즉 국가부담으로 충당이 어려운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그동안 교재연구개발비 명목과 전별금, 보직부처의 보직수행경비 수당으로 편성한 사례가 있어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즉,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근거, 학부모의 재정위원회참여, 급여보조수당지급제안, 국립대 예산편성·집행기준구체화 등의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는 내용이다. 지적사항 중 보직수행경비보조, 전별금 등 소모성경비에의 지출에 사용되는 것은 의당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예산 편성시 재정위원회를 구성토록하여 편성과정에서 집행부의 일방향적 편성이 아닌 전체교수의 참여에 의한 합의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후 평균수에 의한 예산심의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성회 예산 편성 중 정액연구비의 적정수준을 도출키 위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그 비중은 기성회비 인상율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기성회비 지출목적 중 “학교운영을 위한 지출”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제한적 범위내에서의 자귀적 해석을 하는 관리지향적 사고로서는 총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다. 대학은 교수의 연구를 통한 학생에의 강의로 정의되어 져야 하며 그것이 대학총장의 가장 기본적 사고의 근간으로 되어야한다. 서울대학교의 등록금납부서를 살펴보면 ① 수업료 ② 기성회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전체 평균연봉이 90,951천원으로 우리 대학보다 연1,800만원 가량이나 많음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총장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일편향적 시책에 대해서는 지적항거와 회고적 합리성의 비판 정신이 요구된다. 그는 차원 높은 도덕적 열망이 내면화 된 지식인의 총체 인 것이다.

문제는 대학의 생존이다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의 교훈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 전방욱 교수

2007년 3월 6일 통과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운영 법률’에 의해 지난해 3월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법인화된 이래, 같은 해 6월 2일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12월 8일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최근 경북대학교는 올해 6월 중에 법인화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립대를 일괄적으로 법인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갖는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어려워지자 2007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개별적인 국립대의 법인화를 통해 결국 모든 국립대의 법인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환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2020년에는 대학정원이 전체 대학입학자원을 20-25만명이나 초과하고, 대학진학률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인화를 통한 구조조정의 시기도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조만간 법인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 될 것이다. 아마 5년 이내에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법인화할 것이고 국립대학법인은 무제한적인 경쟁으로 내몰리고 결국 국립대학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일부 국립대학은 퇴출이라는 최악의 위기상황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시작한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결국 구조조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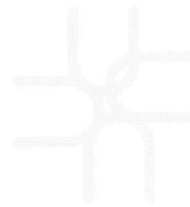
2004년에 일본에서 전격적으로 법인화가 강행된 이유도 저출산에 따른 대학 수요 감소 때문이다. 지역적으로 대학 수요에 차이가 커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대학들이 대학 통폐합 논의에만 치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대학 법인화가 진행되어 일본 국립대학들은 미처 대항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 한다¹.

법인화 당시 89개교였던 일본 국립대학 중에서 법인화 이후에는 30개교 정도만 살아남을 것이고, 15개교 정도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1차적으로 자구노력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립대학 이외에는 폐교되거나 다른 대학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교부금의 배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초에는 각 대학의 운영비 교부금을 학생수에 따라 배분했지만 차기부터는 교부금 등의 배분 원칙도 재검토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일본 국립대학은 법인화로부터 6년간의 중기 목표, 중기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해야 한다. 원래 6년이라는 기간이 만료되는 2010년도부터는 원래 제 1기의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 배분 등이 결정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7년 계획보다 앞당겨서 평가가 시행되었다.²

그 결과 소규모 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절반 이하로 줄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인화 이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년 1%의 예산이 감축되고, 2009년에 법인대학에 대한 국가지원 삭감 금액은 630억엔으로 사

1 박남기. 2009.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대학교육 157: 61-64

2 中井浩一. 2008. 大学「法人化」以後「競争激化と格差の拡大」中公新書



이타마대학과 같은 소규모 대학의 1년 예산 63억엔과 비교할 때 10개 대학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함부로 학생수를 증가시키거나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수입 증가분만큼은 국가 지원 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으로서는 난처한 지경에 처했다.³

실제로 2007년 문부과학성이 대학의 운영비 교부금을 성과에 따라서 배분한다는 가정하에서 시뮬레이션 했더니 87개의 대학 중에서 47개의 대학이 붕괴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연구성과(과연 비 획득)에 의해서 재배분하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립대학의 운영비 교부금이 대폭 감소한다는 결과도 도출되었다. 이에 따르면 배분이 증가하는 대학은 도쿄대, 교토대, 도쿄공업대 등 13개의 대학에 불과하고 교원양성대학이나 지방국립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⁴

● 교육이 기본이다

일차적으로 학생이 찾지 않는다면 다른 부문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대학으로서는 지탱하기 어렵다. 조악한 비유이긴 하겠으나 대학은 교육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인 학부모나 학생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공장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대학이 사회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는 한결같이 질이 높은 졸업생을 계속적으로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따른 공헌을 주요 활동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기후대학(岐阜大学)은 스스로의 의사에 근거해 정한 중기 목표의 달성에 대한 각 부서 개인의 공헌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각각의 개선에 연결해 총체로서의 기후 대학의 가치와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구축된 기후대학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교직원의 활력을 부서의 활력에, 부서의 활력을 대학의 활력에 연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⁵ 요코하마 국립대학 공학연구원장인 시라토리 마사키(白鳥正樹)는 교육 개혁의 방향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재의 육성으로 두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평가기준의 도입 (GPA제, JABEE에 의한 학점 부여 등), 교과 과정의 충실과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 교원개발에 의한 교육방법의 개선, 교원의 교육업적 평가, 교육에 대한 외부평가 등을 개혁의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⁶

● 산학연계에서 살길을 찾는다

3 박남기, 2009,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대학교육 157: 61-64

4 中井浩一, 2008, 大学「法人化」以後「競争激化と格差の拡大」中公新書

5 法人化後「地方国立大学は何をしたか」04年度業務実績評価・注目校の報告 (http://benesse.jp/berd/center/open/dai/between/2006/0203/02kikaku_01.html)

6 白鳥正樹, 国立大学法人化と産学連携 (http://www.me.ynu.ac.jp/doso/contents/kaihou/vol13_2003/ronsetsu.htm)

홋카이도대학, 토호쿠대학, 도쿄대학, 나고야대학,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및 큐슈대학과 같은 구제국대학과 지방국립대의 역할 및 생존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 성공을 거두고 있는 지방국립대는 지역밀착형으로 지역의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다. 이곳에서는 젊은 교원을 중심으로 산학연계의 다층적인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자발적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있다. 지역의 대학과 산업체 그리고 지자체의 산학협력활동의 성공예로서는 80년대 활동을 개시해 92년에 이와테대학(岩手大学)의 교원과 이와테현 현청 직원 등에 의해 설립된 이와테 네트워크시스템, 94년에 개시한 하나마키의 기업가 지원센터, 98년에 아이즈와카마츠사와 지역기업이 참가해 설립한 리에중 오피스 등 이것들은 이업종기업 지방자치체와 연구자 등과의 대화와 협동의 장의 창출, 네트워크와 코디네이션의 중시, 지방자치체에의 민의 수법 도입 등 새로운 연계의 모색을 중시하여 성과를 올려왔다. 89년에 설립한 야마가타대학(山形大学)의 젊은 교원이 설립한 야마가타대학 공동연구조직(얀즈)도 산학관 협력을 강조해왔다.⁷

산학관 협력을 위해서는 직무 발명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해 대학에서의 연구 성과를 원칙적으로 대학 법인에 귀속시켰다. 학내 조직으로서 기술이전기관(TLO)을 설치하고 학내의 각종 조직을 유기적으로 엮어 대학 전체적인 지적 재산의 관리 활용 체제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학지적재산본부를 설치하는 대학이 많다.⁸ 하지만 도쿄로부터 비교적 먼 곳에 소재를 둔 국립대학에서는 법인화 이전에는 단체 지자체 등의 제휴가 비교적 많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이 이루어졌으나 법인화 이후에는 기업과의 제휴비율은 약간 증가하였고 중소기업비율은 약간 감소하여 노력에 비해 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⁹ 그래서 여러 대학에서는 학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학장재량경비를 조성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거나 젊은 교원의 연구비를 마련하는데 사용한다. 즉 지역의 needs에 맞는 대학의 seeds를 키워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니이가타대학에서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학장재량경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조사연구체제를 가동시킨다.¹⁰ 기후대학에서는 학장재량경비를 톱다운형의 프로젝트와 기초연구 분야 연구경비로 사용하고 이외에도 경쟁적 배분경비를 마련해 교육경비와 젊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경비로 사용하고 있다.¹¹

● 대학 운영의 효율화를 꾀한다.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서 연구와 교육을 분리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 츠쿠바대학이 그런 예에 속한다.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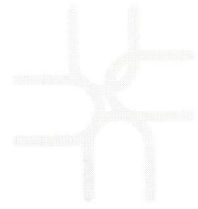
7 中井浩一, 2008, 大学「法人化」以後「競争激化と格差の拡大」中公新書

8 相澤益男, 国立大学法人化と産学の新しいパートナーシップ, (http://www3.fed.or.jp/fedmeeting/sympo2003/pdf/ppt_fed2003aizawa.pdf)

9 中山保夫, 細野光章, 2009, 国立大学法人化と知財本1部設置の共同研究創出に対する影響, 年次学術大会講演要旨集, 24: 918-921 (https://dSPACE.jaist.ac.jp/dSPACE/bitstream/10119/8774/1/2107.pdf)

10 福山利範, 大学法人化の流れの中での地域連携研究の戦略 ~新潟大学の試み~, (http://narc.naro.affrc.go.jp/chousei/kouryuka/sskg04/ni_gaku.pdf)

11 法人化後「地方国立大学は何をしたか」°04年度業務実績評価・注目校の報告 (http://benesse.jp/berd/center/open/dai/between/2006/0203/02kikaku_01.html)



구와 교육의 2개를 축으로 해 매트릭스 조직을 이루고 있다. 학부가 설치되지 않고, 교관이 연구자로서 소속하는 학계와 교육자로서 담당하는 학군 학류(학부에 상당) 및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¹² 니이가타대학에서도 교원은 종래의 학부 소속이 아니라 3개의 학계로 구성되는 교육연구원에 속하고, 각각의 학계아래에는 관련분야로 구성된 계열이 속한다. 경쟁적 외부 자금 획득에서는 종래의 학부 단위로는 대응할 수 없는 학제적 경계영역적인 조직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학제에로의 개편은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¹³ 도쿄농공대학에서는 분교의 특성을 살려 후츠키지구에는 연구지원계를 코가네이지구에는 산학제휴계를 배치했다.¹⁴

그런가 하면 후쿠이대학에서는 살인적으로 감축한 경비를 대학 발전을 위한 경쟁적 자금에 사용하기도 한다.¹⁵

● 대학 본부 정신 차려야

법인화는 대학의 운영체제를 뒤흔들고, 교원 및 직원의 신분을 위협하며 특히 우리대학과 같은 중규모 국립대학의 생존을 위협한다. 법인화를 저지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으나 시기의 문제일 뿐 법인화의 흐름은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인화에 저항을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국립대학의 법인화 대책을 보면서 우리 실정과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법인화라는 파고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이 되어 대학 본연의 가치를 수행하려고 노력할 때라야 극복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지원이 부실하다는 점에서 본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 본부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로'라는 등의 죽어버린 구호만 붙들고 있지, 구성원을 응집시킬 제대로 된 대학 발전의 비전을 제시했는가? 국고를 유지해 지어야 할 멸종한 시설에 기성회비를 투입하지, 대학의 자산을 늘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했는가? 교육역량강화사업비 등 대형 사업비의 대부분을 외주로 소모했지, 내부의 역량을 제대로 강화시키는데 사용했는가? 총장 이하 모든 보직자들이 대학을 규정으로만 읽어냈지, 교수와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사기를 북돋아서 뭔가 이뤄낼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마련했는가? 불행하게도 지난 몇 년간 이에 대한 대답은 아주 부정적이다. 대학 본부는 이제라도 통절히 반성하는 심정으로 대학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화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교수회도 국립대학 법인화 대응책을 대학 본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12 白鳥正樹, 国立大学法人化と産学連携 (http://www.me.ynu.ac.jp/doso/contents/kaihou/vol13_2003/ronsetsu.htm)

13 福山利範, 大学法人化の流れの中での地域連携研究の戦略「新潟大学の試み」. (http://narc.naro.affrc.go.jp/chousei/kouryuka/sskg04/ni_gaku.pdf)

14 鈴木淳土, 国立大学法人化における研究支援と産学連携の推進 (http://www.tuat.ac.jp/~crc/h/h_03/news29/49suzuki.pdf)

15 法人化後「地方国立大学は何をしたか」°04年度業務実績評価・注目校の報告 (http://benesse.jp/berd/center/open/dai/between/2006/0203/02kikaku_01.html)

강릉원주대학교 국제교류의 발전방향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 정기성 교수

I. 국제교류의 의의

얼마 전 모 일간신문에 특이한 보도가 있었다. 일본 벳부 지역에 인구가 늘고 활기가 돌기 시작 하였는데, 이유는 그곳의 대학에 외국학생들이 공부하기위해 유학 와서 늘기 시작 하였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과 대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배제하더라도 글로벌 시대에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웅변하는 기사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러 해외로 가기도 하고, 해외에서 공부하러 오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공용어가 되어 가고 있는 영어를 배우러 많은 학생들이 해외에 나간다. 그리고 한국 경제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학위를 취득하기위해 아시아 주변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유학 오고 있다. 중국학생들이 대량 유입되고 있고, 러시아 학생들이 오고 있고, 기타 국가에서도 상당수 오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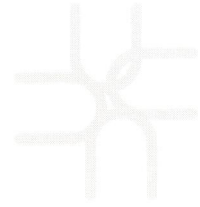
우리대학교에도 2010년 현재 상당수 외국인학생들이 와 있는 실정이다. 2010년 1학기 현재 교환학생으로 27명, 학부생으로 73명, 대학원생 69명, 한국어교육원연수생 57명 등 226명의 학생이 캠퍼스에서 향학의 꿈을 불태우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09년 우리대학교 학생들은 교환학생으로 26명, 어학연수로 28명, 문화탐방으로 69 명 포함 123명의 학생이 해외에 파견되어 생활하였다. 이것은 우리대학교도 국제 교류의 흐름아래에서 상당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 현 황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더욱 활발해지는 글로벌화의 흐름에 따라 우리대학교 국제 교류원에서는 (1) 해외 자매대학 확대 추진 (2) 교환학생 파견 (3) 어학연수 파견 (4) 이문화탐방(배낭여행) 파견 (5) 해외봉사(워크캠프) 파견 (6) 외국인 교환학생 유치 (7) GKS 정부초청장학생 유치 (8) 동아시아관광포럼 EATOF 프로그램운영 (9) 단기교환교수 파견 (10) 한국어교육원 운영 등을 통해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고,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 (1) 해외자매대학 확대추진은 터키, 태국, 필리핀, 중앙아시아 등 우리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대학들을 발굴하여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며,
- (2) 교환학생 파견은 외국어 향상뿐 만 아니라 수업참여를 통하여 학문적 성과를 높이고, 장기간 체류하면서 해당국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감각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 (3) 어학연수는 글로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 향상 및 해당 언어권 문화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추진하는 대학으로는 미국 조지아주립대학, 필리핀 라살아라네타 대학, 중국 하얼빈공업대학, 미국 하와이 퍼시픽대학, 필리핀 블러칸 주립대학, 일본 가고시마 대학 등이다.
- (4) 이문화 탐방은 재학생들이 배낭여행 등 모험을 즐기고 도전정신의 고취 및 타 문화권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하는 것이다.
- (5) 해외봉사는 파견되는 국가에서 봉사를 통해 문화를 경험하고, 팀 내의 다른 학생들과 협력 및 공동생활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대학생 해외봉사 협의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의 감각을 익히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데 초점이 있다.
- (6) 외국인교환학생 유치 프로그램은 자매대학과의 교류활성화와 우리대학 재학생들을 파견하기위해 해당 자매대학 학생들을 교환학생으로 유치하여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대학 재학생들에게 외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7) GKS 정부초청 장학생 유치는 우리 정부의 장학금으로 우수한 해외인재를 유치하여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학의 글로벌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몽골, 네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과 아프리카 권의 나라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 (8) 동아시아 관광포럼 EATOF 프로그램은 단기간 학생을 교류하는 것으로 강원도 지원 자금으로 이루어진다.
- (9) 단기교환교수 파견운영은 해외자매대학간 교수 연구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며, 특히 일본 후쿠이 대학 과 교수세미나를 교환 하고 있다.
- (10) 한국어 교육원은 어학연수생을 유치하여, 한국어 교육을 마치고, 우리 대학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입학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해외 자매 대학들과도 학생 교류를 증진하는데, 본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다.

Ⅲ. 국제 교류의 현황

1. 자매결연 현황

년도 \ 구분	국가	대학	누계
2007	3	4	32
2008	5	7	39
2009	5	6	46

2. 외국인 학생 등록 현황

구분 \ 연도	교환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한국어 교육원연수생	계
2008	18	109	47	36	210
2009	23	80	41	39	183
2010	27	73	69	57	226

3. 본교 학생과견 현황

연도 \ 구분	교환학생	어학연수	문화탐방	계
2007	34	72	55	161
2008	36	41	64	141
2009	26	28	69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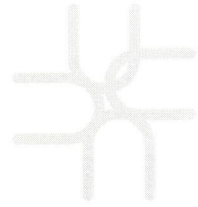
IV. 국제교류를 보는 시각

사회가 글로벌화하면서 국가나 기업은 세계적 시야를 가진 인물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을 교육하고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우리나라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특히 대학 간의 국제교류를 통해 대학이 선진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등을 도입해 대학교육의 질을 선진화 시키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화에 따른 교육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고, 선진화하여 수준 높은 고등 교육기관으로 성장 하여야하는 전략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국제교류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검증을 토대로 새로운 접근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대학의 국제교류가 학생들의 역량을 얼마나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대학이나 국가 경쟁력의 제고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오늘날 대학 간의 국제교류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학교육 시스템의 도입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네트워킹은 대학 간 국제교류의 질을 높이는 바탕이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세계의 각 대학 들은 앞 다투어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내부역량이나 교류를 희망하는 대학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양적 지표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교류 프로그램, 즉 문화교류 등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호 교환하여, 국제교류의 가치를 고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한동대, 경희대, 한국 외대 등은 국제화 지표에서 상위를 차지하면서 외국인 교원도 늘리고,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도 증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외국인 기숙사 등을 따로 설치하는 등 참여 교원이나 학생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접근을 통해 세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국제교류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V. 발전 제언

국제 교류에서 필요한 것들은 매우 많겠지만 (1) 지침서 Handbook (2) 외국인 학생회 (3) 국제관 등은 국제 교류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지침서 핸드북은 지역 문화를 알리고, 생활, 여행 등을 위해 세부적인 안내 정보를 수록하여 외국인 교수나 직원,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어로 된 핸드북은 매우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학생회는 그들의 공간, 또한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잘 활용하여 학교 측에서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이기도 하다.

특히 국제관은 국제교류에 가장 중요한 시설로 문화교류와 어학 교육 등 다양한 국제 교육이 이루어 질 중요한 공간이 되어야 하며, 국제 교류를 위한 기숙사 시설 등은 시급히 조성되어야 할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영어 강의 강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적어도 영어에 대한 공포감이 줄어들고 나아가 국제적 감각을 갖추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 것이다. 영어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에게도 상당한 메리트를 부여하여 대학이 스스로 국제화를 도모해 가는 자생적 발전이 도모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국제적인 시야를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 교류를 넘어, 스스로 글로벌 문화를 창조하고, 익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여, 효율적인 국제교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동 연구 등을 활성화하고 국제 인재 육성의 선도 대학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국제 교류에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원주캠퍼스에 부족한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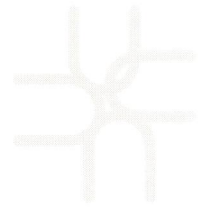
과학기술대학 정밀기계공학전공 • 이종석 교수

강릉캠퍼스에서 15년간을 생활하다가 작년에 원주캠퍼스로 와보니 연구실과 강의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열악하게 느껴집니다. 학생과 교직원 수를 합하면 2000명이 넘는 원주캠퍼스에는 학생회관 1층에 있는 매우 협소한 구내식당 하나가 거의 유일한 후생시설입니다. 그 식당을 매일 이용하는 교직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릉캠퍼스에서 생활할 때에는 점심시간에는 주로 문화관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타 단과대학 교수들은 물론 직원들도 만나고 서로 인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원주캠퍼스에도 그와 같은 공간, 즉 교직원식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올해 3월 하순에 [총장과의 대화]에 〈원주캠퍼스 교직원식당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약 1주일 후에 비서실장은 “(전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교직원 식당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주캠퍼스 공간운영계획에 따른 공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 문제는 대학의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써 현재는 교직원 식당 및 학생 복지시설 그리고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당국에서도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략)”라는 답변을 올리셨습니다. 2007년 3월에 통합대학이 출범한 지 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주캠퍼스에는 변변한 식당 하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계획조차 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기회에 강릉캠퍼스와 원주캠퍼스의 후생복지시설을 비교해보고 원주캠퍼스에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대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캠퍼스 균형발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양 캠퍼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원수와 양 캠퍼스의 교지 및 교사시설 확보현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1)은 2010년 현재 양 캠퍼스의 학생과 교직원 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25%의 강릉원주대학교 구성원들이 원주캠퍼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표2)는 2009년 현재 양 캠퍼스의 교지 및 교사시설 확보현황을 비교한 것입니다. (시설과에 참고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모든 학교시설현황은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알려주어서, 찾아보니 2010년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2009년 자료를 이용한 것입니다.) 현재 양 캠퍼스에서 건축 중인 건물은 포함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강릉캠퍼스와 원주캠퍼스의 교지 확보율과 교사시설 확보율은 각각 320.7%와 196.6%, 122.7%와 83.3%로서 강릉캠퍼스가 각각 1.63배, 1.47배로 높게 나타납니다. 강릉캠퍼스의 인원수가 원주캠퍼스의 3배인 것을 감안할 때 (표2)에서 양 캠퍼스의 교사시설 보유면적 비교치(C/D)는 3정도가 양 캠퍼스의 균형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간주하면, 교사시설별 보유면적 비교치는 모두 3을 넘어 원주캠퍼스의 보유면적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시설 중에서 원주캠퍼스의 연구시설은 전무하며, 원주캠퍼스의 부속시설(1/13.3)과 기타시설(1/8.69)이 강릉캠퍼스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부속시설과 기타시설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들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표1) 양 캠퍼스 소속 인원수 비교

	강릉캠퍼스	원주캠퍼스(B)	합계(A)	B/A(%)
학생*	5944	2007	7951	25.2
교직원**	617	149	766	19.5
합계	6561	2156	8717	24.7

(주) *2010년 5월 7일자 재학생 현황

**2010년 교직원수첩 참조

(표2) 양 캠퍼스 교지 및 교사시설 확보현황*

	구 분		강릉캠퍼스(C)	원주캠퍼스(D)	C/D
교지	기준면적(m ²)		202,018	79,644	2.54
	보유면적(m ²)		647,912	156,544	4.14
	확보율(%)		320.7	196.6	1.63
교사 시설	기준면적(m ²)		101,009	39,822	2.54
	보 유 면 적	기본시설	99,666	26,463	3.77
		지원시설	24,246	6,691	3.62
		연구시설	10,015	0	∞
		부속시설	10,505	787	13.3
		기타시설	6,293	724	8.69
	확보율(%)		122.7	83.3	1.47

(주)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 2009년 자료 참조

다음으로, 양 캠퍼스의 후생복지시설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3)과 (표4)는 각각 양 캠퍼스의 학생복지관(학생회관) 내의 시설을 나타낸 표입니다. 표에 나타난 이외에 기타편의시설로 강릉캠퍼스에는 자연2호관 옆 2식당 내에 2매점, 학술정보관 1층 휴게실에 커피1호점이 있는 반면에, 원주캠퍼스에는 도서관 지하에 휴게실과 매점이 있다고 합니다. 양 캠퍼스의 후생복지시설을 비교해 보면 원주캠퍼스에는 없는 시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체국, 구내서점, 안경점, 제과점, 휴대폰대리점, 사진관, 커피1·2호점, 건강체력센터, 농협 등이 원주캠퍼스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을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원주캠퍼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보면 교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3) 강릉캠퍼스의 학생복지관 내 시설

위치	시 설
지하	탁구장
1층	제1학생식당, 우체국, 구내서점, 안경점, 제과점, 휴대폰대리점, 사진관
2층	학생지원과(소비조합), 사회봉사센터, 학생상담실, 보건진료소,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인권복지위원회, 매점, 커피2호점, 휴게실
3층	예비군연대, 언론원, 신문사, 방송국, 영자신문사, 교지편집국, 졸업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동아리방
4층	건강체력센터, 동아리연합회, 동아리방
5층	비영아트홀
후생관	구내농협, 국제교류원

(표4) 원주캠퍼스의 학생회관 내 시설

위치	시 설
지하	밴드동아리 연습실
1층	매점휴게실, 구내식당
2층	동아리실
3층	총학생회실, 과학생회실

한편, 150명 정도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원주캠퍼스의 교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캠퍼스 중앙에 위치한 테니스코트 2면은 10명 내외의 교수들이 이용하는 거의 유일한 복지시설입니다. 강릉캠퍼스에 있는 교직원식당, 건강체력센터, 골프연습장, 치과병원 등은 제가 가장 그리워하는 후생복지시설입니다. 원주캠퍼스에서만 생활해 오신 교직원들은 이용은커녕 아직 구경조차 못해본 후생복지시설들이 많습니다.

(표5)는 양 캠퍼스의 식당시설을 비교한 표입니다. 강릉캠퍼스에는 별도로 운영되는 치과병원식당과 기숙사식당을 제외하고도 3개의 식당에 1030석의 좌석이 있는 반면에, 원주캠퍼스의 식당시설은 1개의 구내식당에 있는 180석의 좌석이 전부입니다. 더욱이 기숙사식당은 운영되고 있지 않아 기숙사생들도 구내식당을 이용해야 합니다. 식당 내 좌석당의 면적을 비교해보면 강릉캠퍼스가 1.68㎡인 데 비해서 원주캠퍼스는 1.11㎡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원주캠퍼스에 하나 뿐인 구내식당에는 구성인원 12명당 1개에 해당하는 숫자의 좌석이 있어서 식당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좌석당의 면적에 있어서도 1.11㎡에 불과해 식당내부가 매우 비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릉캠퍼스의 식당들이 대개 높고 넓고 쾌적한 식당 환



경을 갖추고 있는 데에 비해서, 낮고 비좁은 원주캠퍼스 구내식당에서의 점심시간은 그리 즐거운 시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부족한 원주캠퍼스의 식당시설은 아마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열악한 원주캠퍼스의 후생복지시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됩니다.

(표5) 양 캠퍼스의 식당시설 비교

강릉캠퍼스*			원주캠퍼스*		
식당명	좌석	면적(m ²)	식당명	좌석	면적(m ²)
제1학생식당 (분식식당)	580	898	구내식당	180	200
제2학생식당	250	397			
문화관식당	200	434			
합 계	1030	1729			
좌석당 면적(m ²)		1.68	좌석당 면적(m ²)		1.11

(주) *치과병원식당과 기숙사식당은 별도로 운영됨

**기숙사식당은 운영되지 않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주캠퍼스에는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나마 있는 시설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두 캠퍼스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때 비로소 강릉원주대학교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릉원주대학교의 진정한 발전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서 학교 당국이 더욱더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원주캠퍼스 학생회에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데 대한 학생회의 답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도서관 자리 부족

강릉캠퍼스는 도서관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있고, 좌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캠퍼스는 좌석의 수도 부족할 뿐더러 일반인들까지 좌석을 사용하고 있어서 특히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 휴게 공간 부족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대에 학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강릉캠퍼스의 경우 학생회관이나 도서관 등에 커피점이나 제과점 등 많은 휴게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에 비해 원주캠퍼스에는 이러한 시

설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 휴게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학생 식당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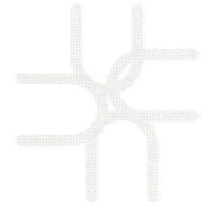
아시다시피 원주 캠퍼스에는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학생식당의 규모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보통 점심시간이 1시간이면 학생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는 30분 정도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강릉캠퍼스는 주변에 식당도 많고 학생식당도 여러 곳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 낙후된 시설

강릉캠퍼스는 낙후된 시설을 잘 보수하는 데 반해 원주캠퍼스는 이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낙후된 곳은 학생회관 뒤쪽 유교관입니다. 그곳에 화장실은 많이 낙후되어있지만 보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이 부족해서 더운 날 유교관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5. 동아리방 및 학생회실 공간 부족

강릉캠퍼스의 경우 학생회관이 넓어서 많은 동아리가 동아리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캠퍼스에는 총 20개가 넘는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아리가 동아리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주캠퍼스는 문화대학과 과학기술대학을 합쳐 총 11개의 학생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회실은 총 8개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학생회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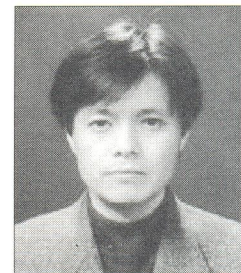
신임교수 및 정년퇴임 교수 소개

신 임 교 수

1. 성 명 : 강철웅
2. 소 속 : 인문대학 철학과
3. 메 일 : cukang@gwnu.ac.kr
4. 연구실 전화번호 : 033-640-2134
5. 학 력
 - 서울대학교 철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박사
6. 경 력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조교
 -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고전학부 Visiting Scholar 겸 클레어홀(Clare Hall) Visiting Fellow
 - 인제대학교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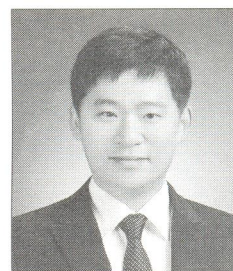


1. 성 명 : 주성수
2. 소 속 : 해양생명공학부 해양분자생명공학전공
3. 메 일 : ssj66@gwnu.ac.kr
4. 연구실 전화번호 : 033-640-2856
5. 학 력
 - 학사 : 1989.2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 석사 : 1992.5 Long Island University, New York, USA., Medical Microbiology
 - 박사 : 2003.8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면역학과
6. 경 력
 - 2004.8 중앙대학교 생명의약연구원 전임연구원
 - 2007.3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초빙교수
 - 2010.2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전임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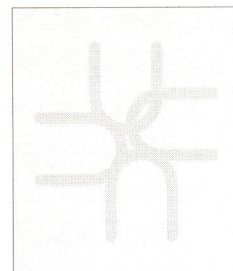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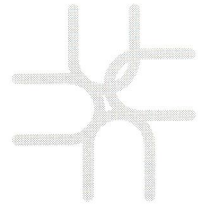
신임교수

1. 성명 : 김민근
2. 소속 :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3. 메일 : omfsmk@gwnu.ac.kr
4. 연구실 전화번호 : 033-640-2753
5. 학력
 -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사
 -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 석사
6. 경력
 - 2007.4.28.~2008.5. 2사단 의무근무대 치과군의관
 - 2008.5.~2009.4. 국군강릉병원 구강악안면외과장
 - 2009.4.~2010.4.27 국군강릉병원 치과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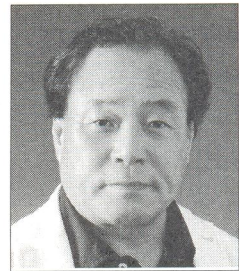
1. 성명 : 박형신
2. 소속 : 문화대학 유아교육학과
3. 메일 : odrihs@gwnu.ac.kr
4. 연구실 전화번호 : 033-760-8629





정년 퇴임 교수

한기주 교수 정년 퇴임식이 2010년 2월 22일 오후 5시에 경포 현대호텔 8층 연회장 다이아몬드 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 송 총장, 박찬일 교수회장, 강규석 전 총장이 축사를 하고 학장과 처장, 본교 교수 및 화단의 중진작가들을 비롯한 250명의 축하객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퇴임식이 이루어졌다. 한기주 교수님은 퇴임후 본교 명예 교수와 강릉미술관 관장을 하고 계신다.



1. 학 력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

2. 주 요 경 력

- 81.4.1 강릉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 87.4.1-87.11.24, 92.3.1-94.2.28 강릉대학교 미술학과장
- 90.3.1-91.2.28 강릉대학교 학생과장
- 95.4.3-97.4.2 강릉대학교 교무처장
- 01.3.1-03.2.28 강릉대학교 예술체육대학장
- 05.10.4-07.10.3 강릉대학교 대학원장
- 한국조형예술학회 회장 역임,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 개인전 10회, 단체전 약 300회 및 프랑스, 스웨덴, 뉴욕, 제네바, 런던, 북경에서 국제전
- 국립현대미술관외 13개 국내 미술관, 스웨덴, 브라질대사관 및 일본 Fukuoka시, Ewaki시 미술관에 작품소장
- 현 재 국립 강릉대학교 미술학과 명예교수, 강릉 미술관 관장

3. 연락처

주소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551 - 26번지

전화 : 011-465-7146 / e-mail : kjhan@kangnung.ac.kr

- ◎ 산업정보경영공학과 박준철 교수, 2009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수상
- ◎ 대기환경과학과 최효 교수, 2009 대한환경공학회 추계학술연구발표회 논문상 수상
- ◎ 금속재료공학과 최재호 교수, 2009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금상 수상
- ◎ 올해(2009년)의 치과인 상에 한송 총장 수상
- ◎ 수학과 김홍철 교수, 2009년도 대한수학회상 논문상 수상
- ◎ 식품과학과 이근택 교수, 한국축산식품학회지 회장 취임
- ◎ 국어국문학과 강등학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
- ◎ 국제통상학과 황원규 교수, 2010년도 국제개발협력학회 학회장에 선출
- ◎ 국어국문학과 최병우 교수, 한중인문학회 회장 피선
- ◎ 치과대학 교정학 교실 연구팀, Excellent Exhibition Award 수상
- ◎ 한송 총장,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에 선출
- ◎ 2009학년도 우수강의 교원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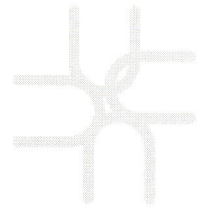
〈전공 - 전임 부문〉

- 최우수 : 산업정보경영공학과/김성준 교수
- 우 수 : 토목공학과/김기홍 교수
- 우 수 : 경제학과/황윤진 교수

〈교양 - 전임 부문〉

- 최우수 : 여성인력개발학과/이미립 교수
- 우 수 : 여성인력개발학과/조주복 교수
- 우 수 : 식품과학과/장미라 교수

- ◎ 토목공학과 이승우 교수, 2010 대한민국 신한국인 대상에 선정
- ◎ 신소재금속공학과 하태권 교수, 2010년 한국소성가공학회 논문상 수상



교수회 활동

1. 2009년도 정기총회 자료 배포

- 2010년 2월 26일, 전체 교수님께 정기총회 자료집 메일을 통해 전달
정기총회 자료 (제15대 교수회 활동, 2009년도 교수회 회계 결산 보고서, 감사의견서)

2. 평의회 개최

- 제16-1차 평의회 (2009.12.3)
(주요안건) 1. 제16대 교수회 회장단 상견례
2. 감사 선출 및 운영진(총무간사, 서기간사, 회계간사) 선출
- 제16-2차 평의회 (2010.2.8)
(주요안건) 1. 교수총회 개최 건
- 제16-3차 평의회 (2010.2.24)
(주요안건) 1. 산학협력단장 임명 동의 건
- 제16-4차 평의회 (2010.4.29)
(주요안건) 1. 신임 평의원 상견례
2. 평의회 운영규정 정비
3. 보직교수 임명 동의안 시행안 제정
4. 단과대 평의회 경상보조비 지급 변경
5. 기 타
5-1) 최근 학내문제
5-2) 교수회보 발간 계획
- 제16-5차 평의회 (2010.5.18)
(주요안건) 1. 탄원서 이의제기 건
2. 국제 교류관 건립 건

3. 설문조사

- 제16대 교수회는 학내문제와 대학발전과제, 학교운영에 대한 본부 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2010년 3월 9일(화) ~ 3월 16일(화) 실시
(총 204명 참가)

4. 개강 식사 초대

- 2010년도 개강 점심 식사에 전체 교수님들을 초대
* 강릉캠퍼스 : 3월 3일(수), 문화관 식당, 120명 참석
* 원주캠퍼스 : 3월 8일(월), 할매집 곰탕, 36명 참석

5. 신임교수 환영회

- 2010년 강릉원주대학교 부임 신임교수 환영회 개최

* 강릉캠퍼스 : 4월 6일(화), 강철웅 교수(철학과), 주성수 교수(해양분자생명)

* 원주캠퍼스 : 4월 5일(월), 박형신 교수(유아교육과)

6. 성과연봉제 서명

- 국교련 주관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 실시 (128명 서명)

7. 국교련, 지교련 출장

1) 제20차 지교련 회장단 회의 (2009년 12월 11일 ~ 12일, 목포대학교)

- 안건 : 1. 국립대학재정회계법 대응
2. 서울대법인화법 대응
3. 교수 보수 관련 토론

참석 : 회장 박찬일, 부회장 김백기

2) 제5차 국교련 임시총회 (2009년 12월 18일 ~ 19일, 경북대학교)

- 안건 : 1. 국공립대학 총장선거 규정 - 발표자 : 명재진 교수(국교련 정책위원장)
1) 총장선거의 절차
2) 총장선거의 쟁점
3) 총장선거 관련자료

2. 국공립대학 교수회 규정 - 발표자 : 김현권 교수(한국방송통신대)
국립대 법인화와 평의원회/교수회 구성 현황

3. 기타

- 1) 국교련 업무 및 활동 보고
2) 공투위 활동 보고

참석 : 회장 박찬일, 수석부회장 구자혁

3) 제21차 지교련 회장단 회의 (2010년 2월 18일 ~ 19일, 공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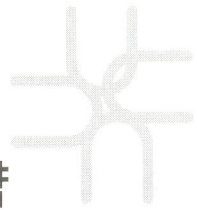
- 안건 : 1. 2009년도 지교련 결산
2. 2010년도 회장단 선출
3. 대학별 현안 토의

참석 : 회장 박찬일, 부회장 김백기

4) 제1차 국교련 임시총회 (2010년 4월 9일 ~ 10일, 부산대학교)

- 안건 : 1. 2010년 국교련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
2. 국교련 연간 회의 일정 및 장소
3. 국립대 법인화 및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대응 방안
(교과부 항의 방문, 공문 발송, 성명서, 서명 여부 등)

참석 : 회장 박찬일



2010년 기성회계 예산안에 대한 교수회 요구사항 요약

□ 성과지향 예산관리의 필요성

성과지향 예산관리의 구체적인 방향 제시 : 기성회계 예산을 통하여 창출하고자 하는 성과지표 및 성과창출 가능성 제시 바람. 예산안의 내용상 예산집행에 초점을 둔 예산편성의 성격이 강함. 구체적인 성과방향과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제시되는 가운데, 이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러하지 못함. 그 결과로 전반적으로 성과관리 속에서 예산이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명품인재육성사업의 배경 및 성과가능성

명품인재육성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는바, 이 사업의 배경과 성과가능성을 밝혀주기 바람. 명품인재육성사업이 특별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제시바람. 단과대학이나 학과단위의 인재육성사업과는 어떠한 차별성이 있으며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밝혀주기 바람. 차별성과 연계성을 가질 타당한 근거가 약할 경우 전시사업의 성격으로 예산중복 및 소모성 예산운영의 가능성을 내포함.

□ 대학이미지제고 일반홍보의 배경 및 성과가능성

광고 중심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는바, 이 사업의 배경과 성과가능성을 밝혀주기 바람. 대학이미지제고 관련 홍보는 대학이미지제고 홍보 관리의 성과 창출형 로드맵과 구체적인 전략 속에서 접근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단발성 홍보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큼. 특히 단순 광고 중심의 대학이미지제고 홍보방식은 그것의 기대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콘텐츠 기반 대학이미지제고 방도가 요청됨.

□ 교수복지강화사업의 요청

학생복지강화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은 학교발전 및 성과창출의 바람직한 방향을 왜곡시킬 수 있음. 예산안의 내용상 교수복지강화사업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미약한 것으로 드러남. 교수복지강화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함. 교수복지강화사업은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자긍심 및 소명의식과 관련되는 성과창출의 중요한 원천으로 접근할 문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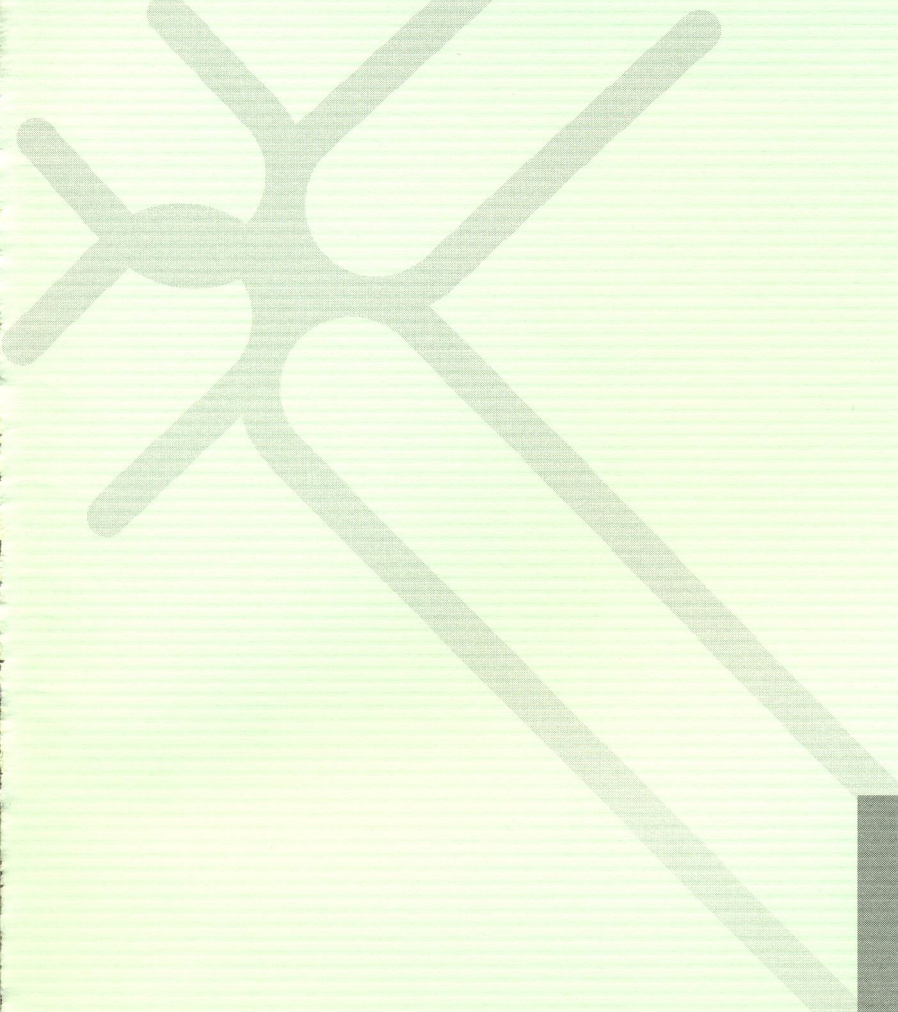
□ 교수회 총괄 의견

본부 및 부속기관 2010년 총액대비 10% 절감 편성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본부 관서운영비 중 업무추진비를 과대 계상하였으므로 절감 바람. 기관운영비 총액대비 10% 감축편성 절감액 및 주요사업비 절감액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지원비, 단과대학 교육지원비(최근 10년간 증액되지 않은 학생 1인당 지원금을 조정하여 반영: 본 비용은 학과 교육, 실험실습비용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요불급 비용으로 학생 등록금 인상시 매년 인상분을 반영하여야 함), 도서관 전자저널 구독비(교수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 가능한 외국저널 구독비를 전자저널 구독비로 전환)에 증액하기 바람.

제16대 교수회 평의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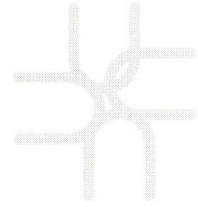
2010. 6. 4 현재

구 분	성 명	소속학과	연락처	임 기
회장	박찬일	정밀기계공학	pci@gwnu.ac.kr	2011.10.31
수석부회장	구자혁	영어영문	jhkoo@gwnu.ac.kr	2011.10.31
부회장	김백기	정보통신공학	bkkim@gwnu.ac.kr	2011.10.31
인문대학 평의원 (5)	박영주	국어국문	pyj111@gwnu.ac.kr	2012.2.28
	이철	영어영문	chollee@gwnu.ac.kr	2012.2.28
	김창진	독어독문	cjkim@gwnu.ac.kr	2012.2.28
	홍영희	중어중문	hyxi@gwnu.ac.kr	2012.2.28
	최재식	철학	zschoi@gwnu.ac.kr	2012.2.28
사회과학대학 평의원 (5)	고민수	법학	brunus@gwnu.ac.kr	2012.4.7
	민남식	경영	nsmin@gwnu.ac.kr	2012.4.7
	반선섭	회계	ssban@gwnu.ac.kr	2012.4.7
	황윤진	경제	yjhwang@gwnu.ac.kr	2012.4.7
	임동일	도시계획부동산	limdi@gwnu.ac.kr	2012.4.7
자연과학대학 평의원 (4)	김병곤	대기환경과학	bgk@gwnu.ac.kr	2012.2.28
	김홍철	수학	hongchul@gwnu.ac.kr	2012.2.28
	백경구	화학신소재	baeck@gwnu.ac.kr	2012.2.28
	이규송	생물	leeks84@gwnu.ac.kr	2012.2.28
생명과학대학 평의원 (4)	김학기	식물생명과학	hakgikim@gwnu.ac.kr	2011.3.1
	손영창	해양분자생명공학	ycsohn@gwnu.ac.kr	2011.3.1
	정동화	해양식량공학	dchung68@gwnu.ac.kr	2011.3.1
	조길석	식품화학	ksjo@gwnu.ac.kr	2011.3.1
공과대학 평의원 (4)	신현호	세라믹공학	hshin@gwnu.ac.kr	2011.6.22
	전충	환경응용화학공학	metaljeon@gwnu.ac.kr	2011.6.22
	임병관	전자공학	ibg@gwnu.ac.kr	2011.6.22
	정효태	금속재료공학	htjeong@gwnu.ac.kr	2011.6.22
예술·체육대학 평의원 (2)	황도영	산업공예	knchdy@gwnu.ac.kr	2010.11.4
	정우진	체육	woojin@gwnu.ac.kr	2011.5.31
치과대학 평의원 (4)	박호원	치의학	pedo@gwnu.ac.kr	2012.1.14
	김철	치의학	chkim@gwnu.ac.kr	2012.1.14
	조영경	치의학	ykcho@gwnu.ac.kr	2012.1.14
	김영준	치의학	alcor3@gwnu.ac.kr	2012.1.14
문화대학 평의원 (4)	홍은영	간호학과	eyhong@gwnu.ac.kr	2011.3.20
	최윤정	유아교육	water@gwnu.ac.kr	2011.3.20
	엄소희	의상디자인	simple@gwnu.ac.kr	2011.3.20
	박수자	음악	musesjp@gwnu.ac.kr	2011.3.20
과학기술대학 평의원 (5)	이형원	컴퓨터공학	lhw@gwnu.ac.kr	2011.3.20
	이재길	정보기술공학	leejg@gwnu.ac.kr	2011.3.20
	김봉석	기계이용공학	kimbs@gwnu.ac.kr	2011.3.20
	김환석	정보통신공학	hskim8805@gwnu.ac.kr	2011.3.20
	조성국	멀티미디어정보공학	skc899@gwnu.ac.kr	2011.3.20



부 록

대학 발전 설문조사 결과



〈부록〉 대학 발전 설문조사 결과

Ⅰ. 학내 문제와 대학 발전 과제

1. 현재 학교 위상

1-1. 아래 항목의 우리대학 위상에 대하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	2) 부정적	3) 보통	4) 긍정적	5) 매우 긍정적	기타	합계
①	우수 신입생 유치	33 (16.2%)	94 (46.1%)	55 (27.0%)	18 (8.8%)	4 (2.0%)	-	204
②	교육환경 및 성과 (졸업생 진로, 교원 1인당 학생 수, 우수교원 확보, 도서관 장서 등)	8 (3.9%)	77 (37.7%)	87 (42.6%)	28 (13.7%)	4 (2.0%)	-	204
③	연구환경 및 성과 (국내·외 연구 수혜실적 및 인센티브 등 효율적 행정지원)	41 (20.1%)	72 (35.3%)	70 (34.3%)	19 (9.3%)	2 (1.0%)	-	204
④	산학협력 및 특성화	13 (6.4%)	53 (26.0%)	106 (52.0%)	27 (13.2%)	4 (2.0%)	1 (0.5%)	204
⑤	사회인식 (교원·재학생에 대한 인식, 졸업생에 대한 인식)	18 (8.8%)	69 (33.8%)	101 (49.5%)	11 (5.4%)	5 (2.5%)	-	204

1-2. 위 5개 평가대상 중 현재 어떤 항목이 국내 다른 대학교와 비교하여 가장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기타	합계
72 (35.3%)	24 (11.8%)	56 (27.5%)	13 (6.4%)	29 (14.2%)	10 (4.9%)	204

1-3. 위 5개 평가대상 중 향후 3년간 우리 대학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기타	합계
66 (32.4%)	50 (24.5%)	40 (19.7%)	17 (8.3%)	26 (12.7%)	5 (2.5%)	204

2. 캠퍼스 균형 발전 및 특성화

2-1. 통합이후 강릉과 원주 캠퍼스의 균형발전과 특성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아님	2) 아님	3) 보통	4) 적절함	5) 매우 적절함	기타	합계
61 (29.9%)	73 (35.8%)	51 (25.0%)	11 (5.4%)	5 (2.5%)	3 (1.5%)	204

2-2. 통합이후 양 캠퍼스의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필요성이 전혀 없음	2) 필요성이 없음	3) 잘 모름	4) 필요함	5) 시급히 필요함	기타	합계
2 (1.0%)	6 (2.9%)	34 (16.7%)	69 (33.8%)	92 (45.1%)	1 (0.5%)	204

2-3. 통합이후 우리 대학의 캠퍼스(공간)의 배치 및 활용의 효율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못함	2) 잘못함	3) 보통	4) 잘함	5) 매우 잘함	기타	합계
35 (17.1%)	77 (37.7%)	71 (34.8%)	18 (8.8%)	2 (1.0%)	1 (0.5%)	204

2-4. 원주에서의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원주캠퍼스에서도 일정 시간 근무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반대	2) 반대	3) 잘 모름	4) 찬성	5) 매우 찬성	기타	합계
8 (3.9%)	52 (25.5%)	35 (17.2%)	84 (41.2%)	25 (12.3%)	-	204

2-5. 캠퍼스의 균형 발전을 위해 원주 캠퍼스에 부총장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반대	2) 반대	3) 잘 모름	4) 찬성	5) 매우 찬성	기타	합계
15 (7.4%)	67 (32.8%)	25 (12.3%)	67 (32.8%)	30 (14.7%)	-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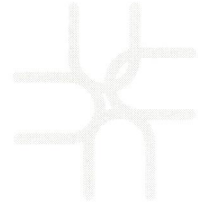
3. 교수회 위상 확보 과제

3-1. 대부분의 국립대들은 교수회 또는 교수평의회가 학칙기구화 되어있으나, 우리대학 교수회는 아직까지 학칙기구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교수들의 교수회비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회 위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은 수준	2) 낮은 수준	3) 적절한 수준	4) 높은 수준	5) 매우 높은 수준	기타	합계
58 (28.4%)	106 (52.0%)	33 (16.2%)	3 (1.5%)	3 (1.5%)	1 (0.5%)	204

3-2. 교수회의 학칙 기구화를 추진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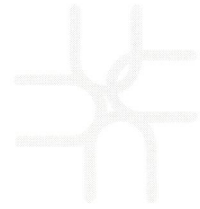
1) 즉시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서 본부에 건의 및 촉구함	62 (30.4%)
2) 차기총장 선거공약 사항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중간평가 받도록 함	86 (42.2%)
3) 교수회장단 또는 평의회 자체의 노력만으로 추진함	11 (5.39%)
4) 잘 모름	28 (13.7%)
5) 학칙기구화를 추진할 필요 없음	14 (6.9%)
기타	3 (1.5%)
합계	204



3-3. 최근 발표된 교수연봉 성과급제 또는 교수회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할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찬성지지
- ◎ 교수 업적 심사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해야 함
- ◎ 성과급제는 결국 제로섬 성격을 가지므로 위화감 조성. 따라서 최소화해야 함
- ◎ 연구업적, 강의평가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성과급제의 확실한 (5등급 이상) 차별화
- ◎ 교수 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 ◎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
- ◎ 연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심과 촉구
- ◎ 평가기준과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 봉사 부문에서 주요 보직자의 점수는 이전과 같이 낮추고 교육부문에서 초과시간의 비중도 하향하며 연구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일반적임. 연구실적을 학교 전산망에 공개하여 의욕을 고취할 것
- ◎ 사전 준비 후 시행 촉구 또는 철회 요구
- ◎ 공정성
- ◎ 학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
- ◎ 10여년 가까이 지원해주던 중점연구회지원이 폐지되는 상황에 대해 교수회가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며, 교내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무시되는 경향이 두드러짐 이에 대한 관심촉구, 봉급 및 연구비 증액에 대한 관심 촉구
- ◎ 교육, 연구 환경의 조성이 적극 요구된다.
- ◎ 국립대 교수 처우 개선
- ◎ 서울 등 타대학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 부탁
- ◎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
- ◎ 기본 급여 확보후 성과급제 도입 추진
- ◎ 대안을 제시할 필요 있음
- ◎ 성과급이 성과급(incentives)다워야 함
- ◎ 교수에 대한 연구비 확대
- ◎ 강의영역, 연구영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성과급제 도입
- ◎ 연구 환경 개선, 월급 인상
- ◎ 교수의 처우 개선
- ◎ 직원의 평가제도 도입, 연구논문과 저서에 대한 지원금 상향
- ◎ 교수연봉 성과급제 반대. 서로 다른 학문 분야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에 대한 확실한 견제. 임명직 교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 최소 한 달 동안 전체 교수들에 의한 검증 후 평의원들 동의 받아 임명
- ◎ 학교 사정에 적합한 방안 마련
- ◎ 우리 실정에 적합한 수준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연구)가 필요
- ◎ 객관적 기준안 확립, 연구와 교육영역 분리
- ◎ 연구를 많이 하는 교수에 대한 성과급 차등 - 현재보다 훨씬 차이 나는 - 제도 도입 시급. 그러나 연구에만 치중하는 불합리성 차단위해 성과급제(교육 + 봉사) 제도 개선 필요 - 항목 등

- ◎ 논문이나 특허에 대한 성과급을 대폭적으로 줘야만 강릉원주대 위상의 upgrade가 가능하다고 봄
- ◎ 분야별, 전공별 구분이 명확히 설정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 행정 감시 및 평가, 교무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 반영(학칙기구화 필요), 교수복지/인센티브/처우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및 의견 수렴(ex 교수연봉 순위 공개 등은 매우 적절한 역할 수행 이었다고 생각함)
- ◎ 학과 운영의 자율권 강화, 교수 위상 제고
- ◎ 교수 연봉 성과급제에 대한 의견 개진이 필요
- ◎ 객관적이고 학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먼저 수립하고 교수 연봉 성과급제를 시행
- ◎ 개개인적으로 전년도(2008년) 연봉대비 2009년도 연봉 감소액을 조사해주시고 발표해주시기를 부탁
- ◎ 전임강사 ~ 부교수까지는 성과급제가 필요하다 생각됨
- ◎ 연구장려금 지원
- ◎ 성과급제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가 필요
- ◎ 대학 견제 기능 회복 강화
- ◎ 우리 학교의 실정에 맞는 방안 도출 : 구성원들 간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 ◎ 교직원 처우 개선
- ◎ 학생 교육관련 연구 방향 제시
- ◎ 전국 최하위의 급여 수준에서 뭘 더 바랍니다?
- ◎ 연봉 인상 필요
- ◎ 강의 계획서 및 학생 지도 부분도 추가되었으면 한다.
- ◎ 성과급제의 효율적이 운용과 교수의 교육, 연구 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 ◎ 평가 항목 중 외부 활동에 대한 고려가 정말 필요한가? 내적인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봄
- ◎ 교수 연봉 성과급제에서 강의 실적에 대한 배점이 매우 높음. 연구 실적에 대한 비율은 높일 필요 있음
- ◎ 권한/권력을 지향하지 말고 학교/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을 낼 수 있는 조직이 먼저 돼야함
- ◎ 교수급여, 복지향상
- ◎ 학교 법인화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배포
- ◎ 면밀하게 검토하여 점진적 실행해야
- ◎ 공정하고 정량화된 평가 기준 설정
- ◎ 교육은 단기적 효율(성과)만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님. 교육=인간, 높은 성과≠행복 「정치 or 기업 시각」으로 교육을 매도하지 못하게 장기적, 인본 중심적 정책 및 시각이 필요
- ◎ 예산 집행 내역 분석 및 공시
- ◎ 교무회의 활성화 (캠퍼스별로 4회 회의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기 바람)
- ◎ 교수 업적 평가 부분의 다양성 확보
- ◎ 교수연봉 상향, 본부행정 견제
- ◎ 사안에 대한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주장으로 요구를 관철해야 함
- ◎ 국제교류원 건립이 기성회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을 중단하고 기성회 예산을 학교의 내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함
- ◎ 연구 활동과 교육활동의 비중을 고려해야 함



4. 차기 총장의 과제

4-1. 다음 중에서 차기총장의 과제라 생각하는 것을 3개만 선택하십시오.

(1) 우수학생 유치와 취업률 제고	109 (2순위)
(2) 교육여건의 개선	77 (3순위)
(3) 법인화를 대비한 대학재정 확충	54 (5순위)
(4) 연구역량 강화	58 (4순위)
(5) 원주 캠퍼스와 상호 보완적 발전	49 (6순위)
(6) 교수처우와 복지후생 개선	119 (1순위)
(7) 대학특성화	27 (9순위)
(8) 총장의 리더십과 대학 구성원간의 인화단결	46 (7순위)
(9) 행정의 효율화	14 (10순위)
(10)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31 (8순위)
(11) 기타 -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내 의견 수렴의 민주적 절차 확립 2) 교명 재검토 3) 특색 있고 효과적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4) 원주캠퍼스의 확대 발전 5) 공과대학의 원주캠퍼스 이전 6)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강의실 근본적 개선, 확충 7) 총장 직선제 → 간선제로

5. 기타 발전 과제(국립대 법인화 및 통합 등)

5-1. 최근 서울대에서 추진하고 타 국립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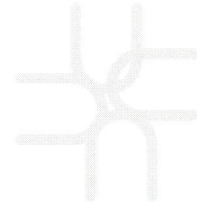
1) 절대 고려할 필요가 없음	2) 고려할 필요가 없음	3) 잘 모름	4) 추진하여야함	5) 반드시 추진하여야함	기타	합계
48 (23.5%)	84 (41.2%)	43 (21.1%)	22 (10.8%)	5 (2.5%)	2 (1.0%)	204

5-2. 강원도내 한 개의 국립대로 대학통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절대 고려할 필요가 없음	2) 고려할 필요가 없음	3) 잘 모름	4) 추진하여야함	5) 반드시 추진하여야함	기타	합계
7 (3.4%)	38 (18.6%)	24 (11.8%)	81 (39.7%)	54 (26.5%)	-	204

5-3. 기타 발전과제에 대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재 교수 연구 촉진에 너무도 소극적이라 사료됨. 현재 국내 대학들의 추세에 따라 연구 성과급을 높여야 함
- ◎ 학과 사무실 통합 → 단과대학 단위로
- ◎ 장학금 및 기숙사 등 학생 복지 확충, 연구 기반 조성
- ◎ 유사 학과 통폐합을 통한 구조 조정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신입생 감소 대비
- ◎ 도내 여건상 2개 국립대가 필요
- ◎ 불가항력으로 법인화가 통과될 경우(정부, 국회)에 준비해야겠으나 사전에 법인화를 저지시키도록 노력해야 됨. 본교의 경우 법인화 이후 지금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 총장과 지역사회의 공조가 요구된다.
- ◎ 대학 간 균형발전, 원주캠퍼스의 발전
- ◎ 쾌적하고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으로도 학교의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캠퍼스 경관, 조경에 투자 필요
- ◎ 통합에는 연합대학 형식의 통합 즉 개별 대학의 인사,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연합대학의 명칭(예 : 연합강원대학교 등)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 ◎ 현재 법인화는 소규모 지방대학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나 더 큰 통합대학으로 발전할 경우 법인화에 대비한 연구 및 제도적 강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됨
- ◎ 교내 전체적으로 분위기 침체, 연구풍토 점차 감소. 통합후 하향 표준화, “획기적 개혁책 필요함”
- ◎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우리 대학 지원 동기 및 경향과 교육 및 학교 운영(취업 지원) 등에 대한 건의 사항 분석에 의한 신입생 유치 및 대학 홍보 전략의 수립과 이행이 필요합니다.
- ◎ 홍보가 부족함, 스타 교수 등을 만들 필요 있음, 연구논문 피인용지수 국내 1위 등을 제대로 홍보 못한 학교정책에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과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궁금함
- ◎ 교육과 연구에 열심인 교수를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
- ◎ 강원도내 한 개의 국립대로 통합하는 것은 우수신입생 유치와 직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화와 함께 학교의 운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 강원도립대등과 같은 강원도내 대학 통합 추진으로 대학의 법인화에 대비한 기본 역량 강화 필요
- ◎ 대학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설계 작업
- ◎ 전문성을 띤 임시 홍보 전담팀(교수+교직원 : 인센티브 부여함)을 구성하여 우수 학생 유치 활동이 필요
- ◎ 1도 1국립대는 장기적으로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타대학에 없는 과를 신설하는 것이 강릉-원주 대학의 미래를 위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제안은 기존과의 약간의 축소 및 타당한 신생과를 개발하는 것이다.
- ◎ 무엇보다 입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학생 입장에서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함
(ex) 식당 및 학생회관 등
- ◎ 원주캠퍼스 지원. 강릉캠퍼스에 지원이 편중됨
- ◎ 생존 측면의 접근보다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 관점의 발전 계획이 나왔으면 한다.
- ◎ 인근 국립대와 통폐합도(강원도에서가 아닌) 고려
- ◎ 학교 본부(집행부)의 추진 사항 및 경과, 결과 등 생동감 있는 활동 내용 홍보
- ◎ 강원도 1도 1대학으로 통합하여야만 법인화를 대비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 ◎ 국립대 법인화 문제는 지방 국립대의 자생력 부분에서 미흡
- ◎ 1도 1대학에 선호적으로 추진할 필요



II. 본부평가

1. 총장기여도 평가

1-1. 총장의 학교 대외 위상에 대한 기여가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못함	2) 잘못함	3) 보통	4) 잘함	5) 매우 잘함	기타	합계
37 (18.1%)	54 (26.5%)	64 (31.4%)	34 (16.7%)	14 (6.9%)	1 (0.5%)	204

1-2. 총장의 학교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못함	2) 잘못함	3) 보통	4) 잘함	5) 매우 잘함	기타	합계
40 (19.6%)	57 (27.9%)	66 (32.4%)	30 (14.7%)	9 (4.4%)	2 (1.0%)	204

1-3. 학교의 기본정책이나 주요사항에 대한 총장의 의사결정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못함	2) 잘못함	3) 보통	4) 잘함	5) 매우 잘함	기타	합계
48 (23.5%)	57 (27.9%)	69 (33.8%)	21 (10.3%)	7 (3.4%)	2 (1.0%)	204

1-4. 총장의 보직인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못함	2) 잘못함	3) 보통	4) 잘함	5) 매우 잘함	기타	합계
51 (25.0%)	59 (28.9%)	69 (33.8%)	17 (8.3%)	5 (2.5%)	3 (1.5%)	204

2. 본부부서 평가

2-1. 다음 부서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못함	2) 잘못함	3) 보통	4) 잘함	5) 매우 잘함	기타	합계
교무처 (교무과, 학생지원과)	13 (6.4%)	52 (25.5%)	99 (48.5%)	23 (11.3%)	4 (2.0%)	13 (6.4%)	204
학생입학처 (학생지원과, 입학관리과)	12 (5.9%)	40 (19.6%)	106 (52.0%)	23 (11.3%)	6 (2.9%)	14 (6.9%)	204
기획협력처 (기획평가과, 대외협력과)	13 (6.4%)	62 (30.4%)	92 (45.1%)	19 (9.3%)	5 (2.5%)	13 (6.4%)	204
산학협력단	7 (3.4%)	30 (14.7%)	102 (50.0%)	46 (22.5%)	7 (3.4%)	12 (5.9%)	204
일반대학원	3 (1.5%)	36 (17.6%)	125 (61.3%)	21 (10.3%)	4 (2.0%)	15 (7.4%)	204
도서관	4 (2.0%)	17 (8.3%)	105 (51.5%)	59 (28.9%)	7 (3.4%)	12 (5.9%)	204
정보전산원	7 (3.4%)	21 (10.3%)	118 (57.8%)	42 (20.6%)	4 (2.0%)	12 (5.9%)	204
사무국 (총무과, 경리과, 시설과)	7 (3.4%)	22 (10.8%)	120 (58.8%)	34 (16.7%)	4 (2.0%)	17 (8.3%)	204

2-2. 위의 부서를 포함하여 기타 학교 부서 중에서 특별히 지적하거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 현대의 조류에 따라 국제관계 업무부서가 강화되어야 함
- ◎ 당국에서 일반 교수의 의견 수렴을 더 확대해야 함
- ◎ 교직원의 무사안일주의 타파와 경쟁시스템 도입
- ◎ 업무인계인수 제대로 하고, 직무태만이나 유기시 책임 추궁하여 성실한 근무태도 수립필요
- ◎ 직원들이 움직이지를 않는다. 보직 교수들은 수수방관하고
- ◎ 3개 주요부처의 행정 및 업무의 신속성
- ◎ 전문성 및 역량이 부족함,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필요
- ◎ 산학협력단을 폐지하고 기획협력처에서 업무 관장하도록 함
- ◎ 대학운영은 단과 대학 중심 운영이 가능토록 일정 학생 등록금중 일정률을 단과대학 편성이 가능토록 분권화
- ◎ 신속한 제설 작업이 필요함
- ◎ 도서관 : 도서구입비 및 저널 구입비용의 확충
- ◎ 교원복지부문(총무과) : 매해 건강 보험이 일정부분(기간) 안 되는 기간이 발생함. 해마다 왜 반복되는지
- ◎ 이유 없이 수시로 전산 마비(불통)
- ◎ 직원 성과급제 시행 : 열심히 사람과 아닌 사람 차등 없음 -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함. 우리 교수사회도 마찬가지임
- ◎ 사무실에서 신문 보고 있거나 손톱 깎고 있지 맙시다. 사람이 들어가면 아는 척 좀 하고.
일반대학원 : 제발 영어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좀 배치합시다.
기획협력처 : 무슨 기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광고나 제대로 합시다.
- ◎ 행정은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부서임 (강릉원주대는 주객이 전도됨)
- ◎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 국제교류원이 대학 위상 제고 및 국제화에 더욱 노력해야 함
- ◎ 본부에서 내려오는 공문들의 기한이 짧아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렵습니다.
- ◎ 전 부서에 있어 업무 숙련도 및 열정이 매우 낮아 중복된 업무 및 근무태만이 만연
- ◎ 총장과의 대화란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함
- ◎ 행정 서류 결정 시한에 시간 여유를 주었으면 함. 예 · 체대 도로에 눈 좀 치워줬으면
- ◎ 학생상담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 학생의 대학 생활을 위해 반드시 강릉, 원주 각각 1인씩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학생상담실에 추진력, 로비력이 있으면 가능하면 교수가 장을 맡아야 된다.
- ◎ 입학관리과 : 과별 홍보도 필요하다고 본다.
- ◎ 통합 이후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본부의 편리주의가 좀 심한 것 같음. 일관성 있는 행정 개선이 필요
- ◎ 원주캠퍼스의 학생과 교수 복지 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주시기 바람
- ◎ 지역 교육을 위한 산업대학원 등 특수목적 대학원 설립 및 평생교육원 지원 강화
- ◎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계획(년 안)을 수립하여 공포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업무처리 - 사례 : 강의 우수교원 포상제 등
- ◎ 정보전산원 :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 (특히 영문홈페이지)
도서관 : IEEE 등 공학 분야 전자저널 가입 등이 아주 미흡하여 학술 활동에 지장 초래
- ◎ 졸업식 날 보도에 눈이 쌓여 보행이 불가능한 학교라면……. 안타깝습니다.
- ◎ 유명무실한 연구소의 폐지
- ◎ 개강 전 방학기간에 강의실 시설 점검



3. 교육 부문 평가 : 교육개선사업, 국제화 사업 등

3-1. 현재 우리 대학이 17개국 50여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학생교환 및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못함	2) 잘못함	3) 보통	4) 잘함	5) 매우 잘함	기타	합계
2 (1.0%)	30 (14.7%)	89 (43.6%)	70 (34.3%)	12 (5.9%)	1 (0.5%)	204

3-2. 본부의 교육부문 사업(예 : 영어몰입교육, 기초수학교육,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이 교육의 질과 학생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기타	합계
6 (2.9%)	33 (16.2%)	57 (27.9%)	83 (40.7%)	25 (12.3%)	-	204

3-3. 외국인 학생 유치사업이 우리대학 발전과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기타	합계
2 (1.0%)	28 (13.7%)	65 (31.9%)	94 (46.1%)	15 (7.4%)	-	204

3-4. 기타 교육개선사업과 국제화사업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외국 학생들 입학(자격)을 엄격히 심사
- ◎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실질적인 교류 필요 (학생 교류, 대학원생 교류, 교수 교류 등)
- ◎ 국제교류원 한국어 교육원의 위상 강화 및 체계화
- ◎ 장기적인 교육개선사업 설정, 교환학생의 증원
- ◎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과 학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 성적 평가를 보다 공정히(엄밀히)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이 요구됨. 주 4일 근무 안하는 교수를 적발해 벌칙을 가함으로서 근무태도도 고취시켜야
- ◎ 내실 있는 국제화 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 교류는 물론 교수의 해외 연구 체류 시 구체적 혜택(숙소제공, 연구실 제공)이 있는 방향으로 발전
- ◎ 학과 중심의 역량 강화 사업이 절실하다
- ◎ 교류 대학과의 관계 강화
- ◎ 양보다 질적 개선에 힘을 것, 관리 못할 국제 교류 추진하지 말 것
- ◎ 외국인 학생 유치도 중국일변도가 아닌 영어권 및 비중국인으로 확대해야 함
- ◎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학과의 교수 총원(확충)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있음. 국제화 사업은 교류 대학의 수를 늘리는 데 치중하지 말고 연구 교류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대학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한글로 논문을 쓸 수 있어야 함
- ◎ 국제화를 하려면 대부분의 서류를 영문 작성하고 이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함. 현재 직원 중 제대로 이를 수행하는 사람이 국제교류원 몇 명 빼고 없음. 특히 대학원에 외국 유학생들이 많은데 대학원 직원들 정말 한심함. 영어 말은 못하더라도 읽고 쓰는 건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읍시다.

- ◎ 본부의 교육 부문 사업에서 “영어몰입교육” 등 단지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인 것처럼 보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소수의 우수한 학생(인재)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꾸준히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 외국인 학생의 출석, 지역 내 유흥업소 종사 등을 관리하고 있는지
- ◎ 영어 생활관 1개동 운영(강원대학교에서 운영 중)
- ◎ 국제교류원 건립 반대
- ◎ 외국 유학생(대학원생 포함) 유인책 적극 발굴 필요
- ◎ 중국 및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 우수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강원원주대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한국어 교육, 등록금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전담기구설치 요망
- ◎ 자매 대학 숫자 늘리는 형태의 국제화 사업은 지양해야 함
- ◎ 강의실 및 연구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개선이 아닌 혁신을 요구함
- ◎ MOU 수에 연연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교류 협력 실적이 많아야 함
- ◎ 학생 교환 프로그램이 더 많은 학생과 다양한 지역으로 활발히 진행할 수 있으면 한다.
- ◎ 각과에서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격도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 ◎ 실질적인 연계 활동이 필요. 학과 차원의 연계 육성 지원
- ◎ 실용적인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 우선 영문 홈페이지부터 잘 만들어 놓고(수정하고) 국제화사업을 논하길
- ◎ 외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 확대
- ◎ 연구 중심 대학보다는 교육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 필요
- ◎ 교수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교류제도 활성화

4. 복지, 연구 지원 부문 평가

4-1. 교수들의 보수(기성회연구비 등) 및 복지수준을 타 국립대와 비교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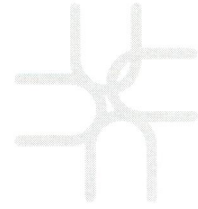
1) 매우 낮은 수준	2) 낮은 수준	3) 적절한 수준	4) 높은 수준	5) 매우 높은 수준	기타	합계
107 (52.5%)	75 (36.8%)	17 (8.3%)	2 (1.0%)	1 (0.5%)	2 (1.0%)	204

4-2. 논문, 저술, 발표(예체능)의 지원금 및 학술발표 지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기타	합계
76 (37.3%)	77 (37.7%)	43 (21.1%)	6 (2.9%)	2 (1.0%)	-	204

4-3. 새로 시행 될 교수업적평가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못됨	2) 잘못됨	3) 보통	4) 잘됨	5) 매우 잘됨	기타	합계
16 (7.8%)	35 (17.2%)	117 (57.4%)	26 (12.7%)	5 (2.5%)	5 (2.5%)	204



4-4. 5단계로 확대 시행 될 국고연구비성과급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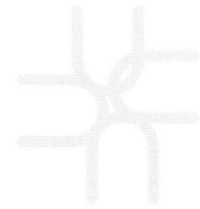
1) 매우 잘못됨	2) 잘못됨	3) 보통	4) 잘됨	5) 매우 잘됨	기타	합계
14 (6.9%)	27 (13.2%)	119 (58.3%)	29 (14.2%)	10 (4.9%)	5 (2.5%)	204

4-5. 기타 우리대학 교수복지 및 처우개선과 연구지원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출판사를 활성화해서 학술저서 발간을 촉진시켜야 함
- ◎ 학술 발표 지원금의 대폭 확충, 성과급제도의 확대시행
- ◎ 교수 식당의 확충 및 독립화 필요
- ◎ 교수 식당에서 석식 제공 요망
- ◎ 교수업적 및 성과 지표의 엄정화, 연구비 증액
- ◎ 보수와 연구지원비의 대폭인상이 필요 현재 보수는 고교수준임, 주요 보직자(특히 교무위원)의 수당을 반감하여 보직에 대한 욕심을 줄이고 순수한 봉사자세를 진작시킬 것
- ◎ 경험을 해 봐야 의견을 내지 : 최악의 수준을 면하는 것이 우선과제
- ◎ 10여 년간 지원하던 중점연구회 지원을 중단 재개를 촉구합니다. 교수 복지 및 처우 개선을 타국립대에 비해 바닥 수준임. 이를 하루 속히 해결시켜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연구비를 대폭 증액을 요청함
- ◎ 혁신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본부 집행 예산을 축소, 학과 운영 예산 강화 확대
- ◎ 낮은 처우 개선
- ◎ 차기 집행부의 역량 기대
- ◎ 식당은 단순히 먹을거리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교류 및 관계의 공간임. 잡시장 같은 교직원 식당의 분위기 쇄신 필요함. 예의 없는 학생들과 함께 해야 하니 너무 소란스럽고 바빠 먹어야 함. 식사는 매너임
- ◎ 기성회비 지원 비율을 학생 등록금 인상과 연계하여 일정 비율씩 향상
- ◎ 교내 연구비는 매년 모든 교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 논문제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함
- ◎ 월급 인상, SCI 논문 격려금 200% 인상
- ◎ 월급 좀 올려주시길
- ◎ 기성회비만으로 새로운 건물(국제교류관?)을 신축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니 교수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다루어야 함
- ◎ 기성회 수당을 타대학 수준으로 맞춰야 함
- ◎ 차등 지원폭 확대
- ◎ 논문과 특허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인원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건당으로 해주든가 아니면 한 건당 SCI 논문이나 특허등록은 2,000만 원 이상 인센티브 책정 시행해야함. 지금은 한건 당 7~8만원의 인센티브 받고 있는데 논문 투고료만 해도 30만원이 들고, 특허 출원 및 등록까지 되는데 300만원이 드는데, 고작 7~8만원 인센티브 주면서 열심히 SCI 논문 쓰고 특허 등록하는 것이 지원책이라고 볼 수 없음
- ◎ 교수복지/처우 : 연봉은 올리지 않더라도 인센티브 좀 올립니다. 이게 뭐니까? 교수업적 평가시 “봉사” 부분 낮춥시다. 놀고먹는 사람 없게 합시다. 누군 시간 남아서 연구합니까? 연구지원 : SCI 논문 값 올립니다. (다른 학교 좀 보세요. 이게 뭐니까?) 어디서 연구비 가져온다고 하면 총장이나 산학협력단장은 버선발로 나갑시다. (다른 학교 좀 보고 배우세요.)
- ◎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는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성적에 거의 차이가 없이 지원하

는 동등한 수준의 대학으로 인식되었지만 현재 두 대학은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교수님들에 대한 “연구지원”과 “격려”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연구지원”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강원대”에서 지원하는 방법만 벤치마킹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논문 게재비 전국 최하위, 본부는 연구하는 교수들을 응원하고 지원할 의지가 없다.
- ◎ 연구 장려금의 확대
- ◎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 확대 필요
- ◎ 교수회관 건축 및 연구 공간 지원을 확대 바람
- ◎ 보수 및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에 차등 지급에 대한 논의 필요
- ◎ 본부에서 교수 처우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대책 요구
- ◎ 총장이 대외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이나 연구비 지원금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더 두었으면 합니다.
- ◎ 연구실적 지원금에 대한 상한을 두는 것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더 많은 실적을 낼 능력이 있는 연구자도 상한제에 묶여서 실적을 낼 수 없다. 금액도 너무 타대학에 비하여 적다
- ◎ 원주캠퍼스 교수식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 많은 학생과 뒤섞여 공간이 극히 부족합니다. 3
- ◎ 교수복지와 연구지원에 대한 대폭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그 시행이 요구된다.
- ◎ 공간의 효율적 사용 : 본부(강릉)에서의 처장실 등(총장실)이 원주캠퍼스에 존재하나 사용이 안 되고 있음. 그 공간을 학생이나 다른 실질적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도록 공간 배정 요함
- ◎ 지금의 처우도 충분
- ◎ 교수급여(기성회연구비)를 현실성 있게 인상하기 바람. 적어도 물가인상률 정도까지는 필수
- ◎ 과제 연구비 및 연구년 활성화 : 타대학은 해외, 국내 구분 없이 일정 지원금만 받고 자유로이 수행. 이것이 진정한 연구년이 아닐까함(기회 박탈 방지)
- ◎ 보수에 대한 상향 조정이 요구됨
- ◎ 처우개선 향상 및 연구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 교수업적평가를 우리대학 여건에 맞도록 수정
- ◎ 교직원 식당
- ◎ 원주캠퍼스 식당 개선 요망
- ◎ 월급 향상과 논문 출간 지원금(격려금) 향상



◎ 설문조사 참여자 통계

단과대학	1) 인문대학	2) 사회과학대학	3) 자연과학대학	4) 생명과학대학	5) 공과대학
	26 (12.7%)	21 (10.3%)	17 (8.3%)	26 (12.7%)	28 (13.7%)
	6) 예술·체육대학	7) 치과대학	8) 문화대학	9) 과학기술대학	기타
	6 (2.9%)	19 (9.3%)	20 (9.8%)	34 (16.7%)	7 (3.4%)

직급	1) 전임강사	2) 조교수	3) 부교수	4) 교수	기타	합계
	7 (3.4%)	26 (12.7%)	21 (10.3%)	140 (68.6%)	10 (4.9%)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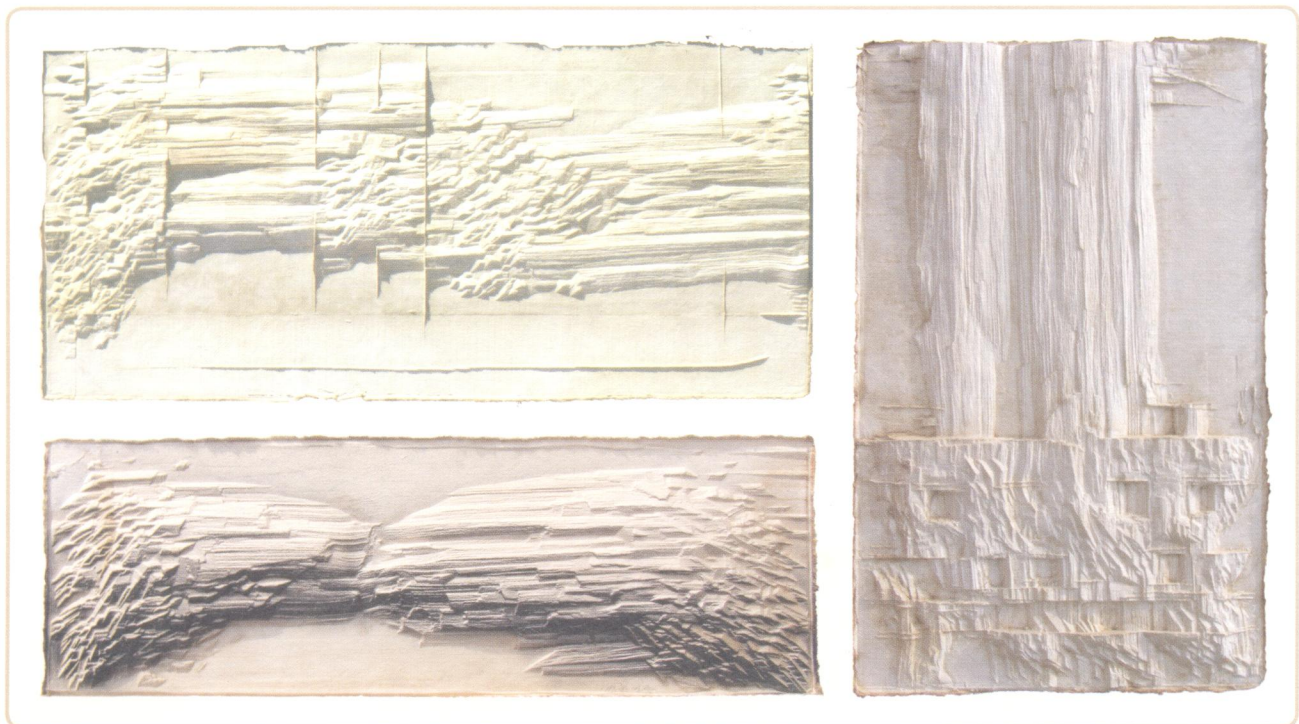
근무연수	1) 5년 미만	2) 5년 이상 ~ 10년 미만	3) 10년 이상 ~ 15년 미만	4) 15년 이상 ~ 20년 미만
	16 (7.8%)	35 (17.2%)	40 (19.6%)	56 (27.5%)
	5) 20년 이상 ~ 25년 미만	6) 25년 이상	기타	합계
	26 (12.7%)	21 (10.3%)	10 (4.9%)	204

※ 설문지 작성에 응답을 안 하신 분은 기타로 분류하였음.

※ 설문조사 응답률

- 전체교수 : 377명
- 장기해외파견 : 16명
- 연구년 : 18명
- 설문조사 응답자 수 : 204명

전체교수 - 장기해외파견 - 연구년 = 343명	전체교수 - 장기해외파견 = 361명	전체교수 - 연구년 = 359명
설문조사 응답률 59.5%	설문조사 응답률 56.5%	설문조사 응답률 56.8%



한기주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 발행인 : 박찬일 ■ 편집인 : 구자혁 · 김백기 ■ 주소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학로 120번지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 전화 : 033. 640. 2749 ■ 팩스 : 033. 640. 2749 ■ 이메일 : knupa@gwnu.ac.kr ■ 홈페이지 : <http://pa.kangnung.ac.kr>